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경자년(庚子年) 새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푸른 감람나무의 꿈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28장(통일찬송가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31장「그는 여호와」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사무엘상 17:1~10(구약 p.434~435) 인도자
“가문의 대표 선수”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다함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비전을 말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 비전들을 듣고 기도해줍니다)

찬 송 36장(통일찬송가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375장「우리들의 무기는」

마 무 리 주기도문 다같이

가문의 대표 선수(사무엘상 17:1~10)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은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 다양한 가족행사를 치르지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명절입니다. 내가 가문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가문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가문의 대표 선수(champion, 4절)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개인의 죽고 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참 신인지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누가 보아도 블레셋의 승리가 확실했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이렇게 무모한 싸움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의 확고한 패배 이유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인데(6:17, 수 13:3), 이곳은 가나안 초기 거인족이었던 아낙 족속이 거주하던 곳입니다(수 11:22). 골리앗의 신체가 거인이었던 것은 아낙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는 2m 90cm(1규빗=45~53cm)이었고, 갑옷이 57kg(1세겔=11.4g), 창 날의 무게만 7kg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무기와 보호 장비를 다 합치면 100kg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사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윗은 ‘소년’(33절)으로 13~15세 정도의 나이에 150cm 키의 미소년이었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윗을 ‘막내’(작은, 미약한, 14절)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부각시킵니다. 다윗은 전투를 위해 아무 것도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목동처럼 자신이 들개들을 쫓을 때 사용하는 물매와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을 뿐입니다(40절). 이 싸움은 예상을 깨고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50절).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은 이방신들의 이름을 붙잡은 대표 선수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군사의 숫자, 무기의 현대화, 군인의 사기가 아니라 ‘신들의 이름’(43절)과 ‘여호와와 이름’(45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 다윗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길래 놀랍고도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전쟁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47절).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히 11:38). 가장 미천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약함이 곧 강함으로 바뀝니다.

둘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36절).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승리는 ‘중심’(삼상 16:7)에 모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당시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 완전 무장한 군사력, 적군의 사기에 놀려 자신들을 개취급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놀라’, ‘크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11절).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극도의 공포에 민족 전체가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개같은 장수의 말에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만’이란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거대한 적군의 장수는 마치 양들을 겁탈하려는 짐승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위협하는 들개를 물맷돌로 제압하듯 일상의 목자처럼 반응했습니다. 특별한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 완벽한 무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란 골리앗을 매일 맞닥뜨리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짓눌려 크게 놀라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의 현장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다윗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승리를 얻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첫째, 다윗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 가문의 대표 선수들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천국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문의 대표 선수로 가족들을 만나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 2:9)

둘째,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비법이 특별한 데 있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습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매일의 큐티 습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는 섬기는 습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습관, 남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연습하는 습관들이 우리 앞의 골리앗을 완패시킬 수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의 꿈을 이루는 영적 가문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보낸 하늘 가문의 대표 선수임을 깨닫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람나무의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 가문과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